

중국산업경제브리프

2015년 1월호

- ◆ 이슈 분석: 한중 FTA 이후 산업기술협력
- ◆ 산업분석: 중국 제조업의 추격 현황과 한국의 경쟁력 전망
- ◆ 산업정책해설: 국무원, 7개 분야에 대해 민간자본 투자 장려
- ◆ 산업 동향 분석
 - 11월 중국 공업 부가가치 전월대비 0.5% 포인트 또 폭락
 - 12월 중국 민간 제조업 PMI 지수, 6개월만에 임계치 하회
- ◆ 산업단신
 - 2015년 철강산업 공급과잉 여전히 난제
 - 상하이자유무역구 자동차병행수입 시행
 - 중국, 희토류 수출쿼터제 폐지, 실질적 영향력은 크지 않을 듯
 - 중국 양로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 ◆ 특별기고: 재중 한국기업의 대중수출품 교역센터 확보방안

산업연구원 북경지원(韓國産業研究院北京代表處)

연락처: 北京 Tel 010-8237-8633, Fax 010-8237-8663

인터넷전화(한국) 070-8837-3212; E-mail: kietcn@naver.com

산업연구원 중국산업 홈페이지(www.china.go.kr)

* 지난 호는 산업연구원 중국산업 홈페이지에서 구독 가능



한중 FTA 이후 산업기술협력: ‘기술협력’에서 ‘혁신협력’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성범

□ ‘기술협력’에서 ‘혁신협력’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중국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이 변화중

-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추진된 가공 무역 중심의 ‘세계 공장’ 역할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내수시장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로 전환을 추구
-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기술혁신 주체로서 그동안 공공섹터에 비해 취약했던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기업 규모의 확대를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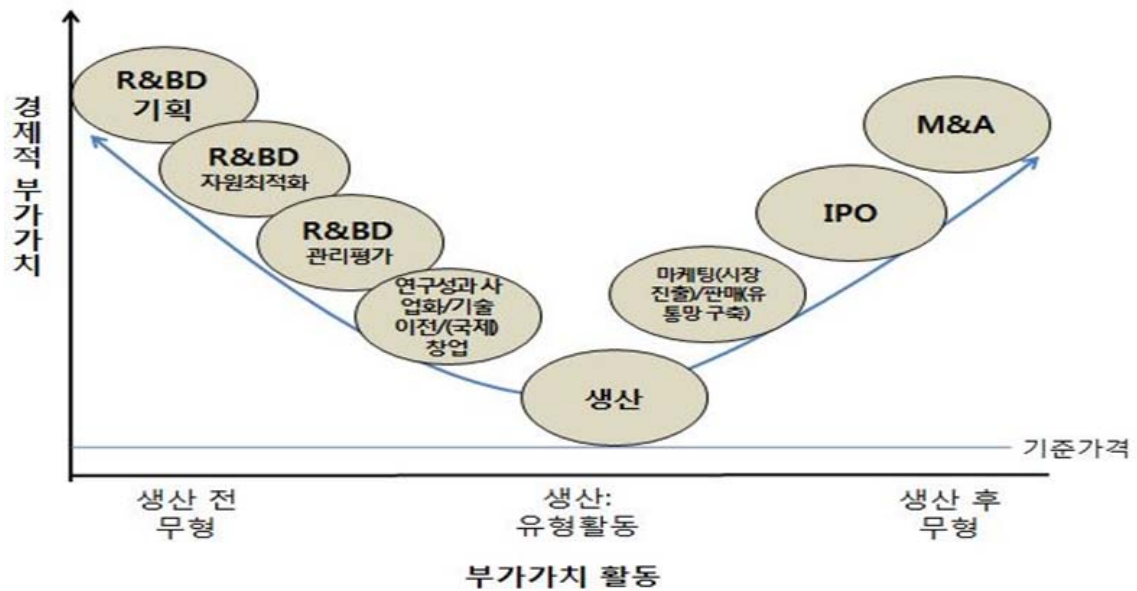
○ 기술과 R&BD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 **R&BD형 마케팅의 중요성;** 동부연안, 고소득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절약·첨단기술 분야의 현지 공동 R&BD 및 공동 마케팅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
 - ※ 최근 중국은 일인당 GDP가 매년 1,000달러씩 증가하면서 2013년 6,900달러를 기록, 이제 중국 소비자들은 이른바 예쁜 고양이, 녹색 고양이를 원하고 있음. 즉 中國向 제품이 필요한 시점
 - ※ 따라서 적극적인 Made for China, Design for China, R&BD for China 전략이 필요, 단 중국과 공동으로 추진되어하며(Made with China) 한중 공동의 글로벌 시장 개척 추진도 필요
- 중국 국내 기술시장의 활성화; 내륙 지역 및 2·3선 도시의 기업들은 성

숙기술을 포함해 기술 수요가 급증(86조원), 이에 대한 한중 공동 연계가 필요

○ 혁신협력' (Innovation Cooperation) 개념도

- 생산을 중심으로 생산 전과 생산 후의 무형 활동의 부가가치가 높음.(스마일 커브)
- 혁신협력 추진: 혁신 가치사슬(Innovation Value Chain) 전주기에서 한중 간 글로벌 혁신 협력 추진이 필요



□ 협력 추진방안 Keyword

① 기존 플랫폼의 종합적 리뷰와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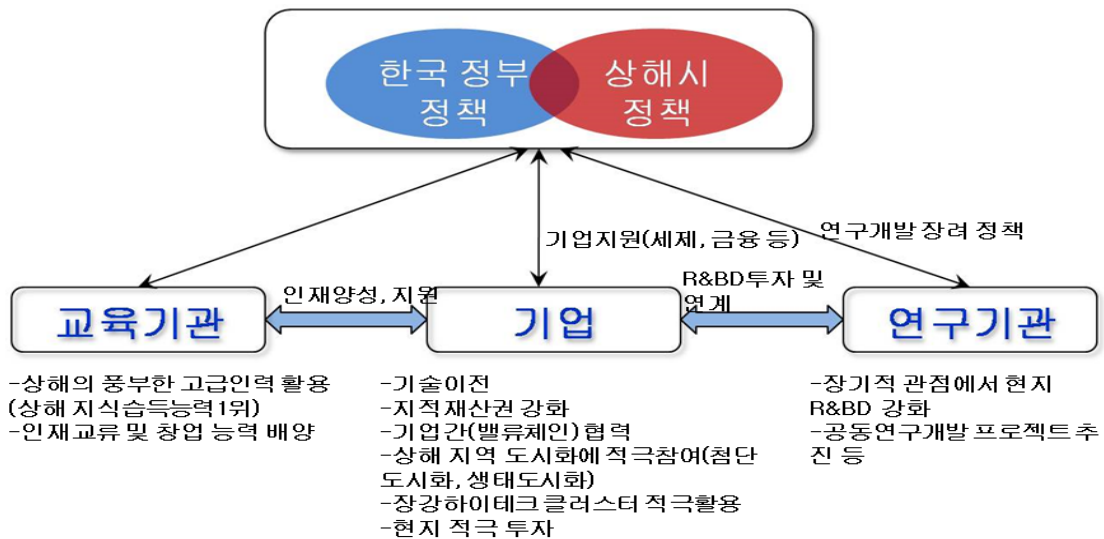
분야	세부내용
정보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정보통신협력 장관급 전략대화’ 신설 - 정보통신, 사이버안보, 인터넷 주소자원관리, 국가정보화, 클라우드 컴퓨팅 등 논의 - 5G 이동통신 표준 및 신서비스 발굴 등에서의 협력

과학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과학, 해양, 생명과학, 신소재, 정보통신기술 등에서의 전략적 대형 공동연구 강화 - 중대한 기초과학분야 연구기관 간 교류협력 촉진
신기술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용기술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의 기술협력, 공동 R&D확대 - 기업협력혁신센터의 공동설립
에너지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절약 분야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 한중 에너지 절약분야 협조 메커니즘 구축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 에너지절약 및 효율에 관한 구체적 사업 발굴 및 공동 추진
고령화 및 의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산업 및 항노화에 대한 공동연구 - 의약품, 의료기기분야 상호인증을 위한 국장급 협의체 설치 운영
지식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의 창출, 활용, 보호, 관리에 관한 호혜적 협력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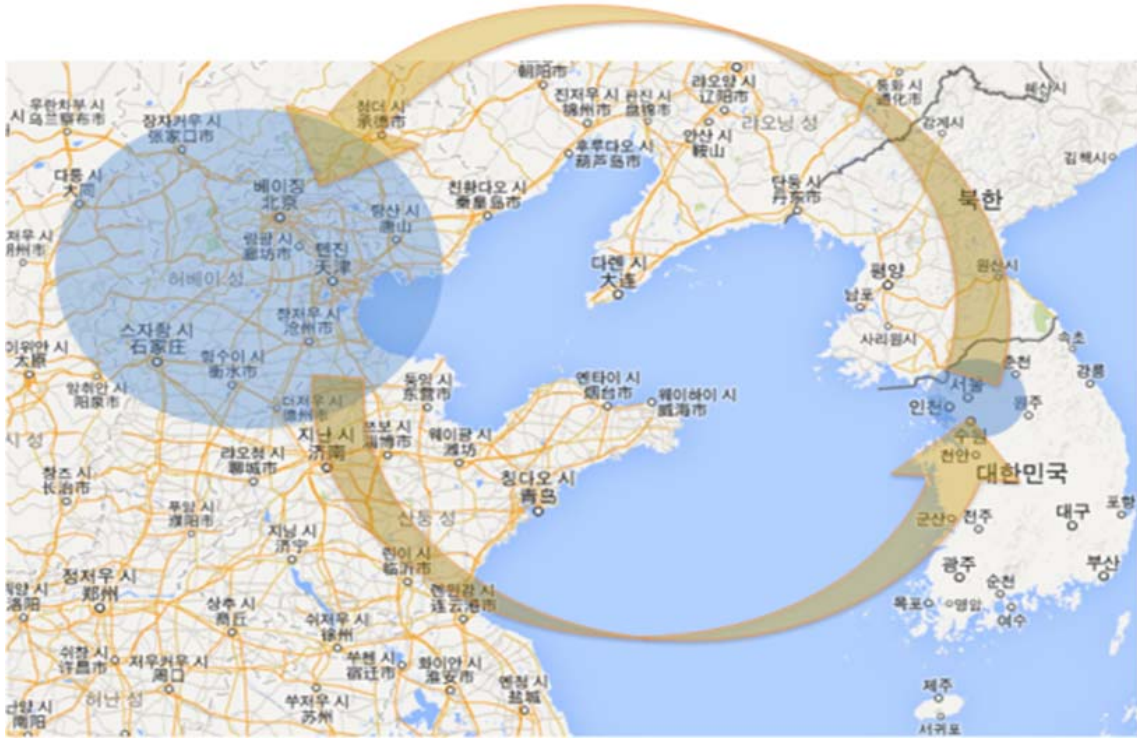
② 지역별 특화된 혁신협력을 추진

○ 상하이 사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 정책 협력을 강화

- 한국의 ‘신성장동력산업’ 과 상해의 ‘전략적 신흥산업’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상호보완적 기술 교류



○ 한중 수도권 혁신협력 추진(중국 京津冀 + 한국 서울/인천/경기도)



③ 중국 내륙지역 기술 솔루션 협력체제를 구축

표 1 2013년 지역별 기술거래현황 (단위: 건, 억 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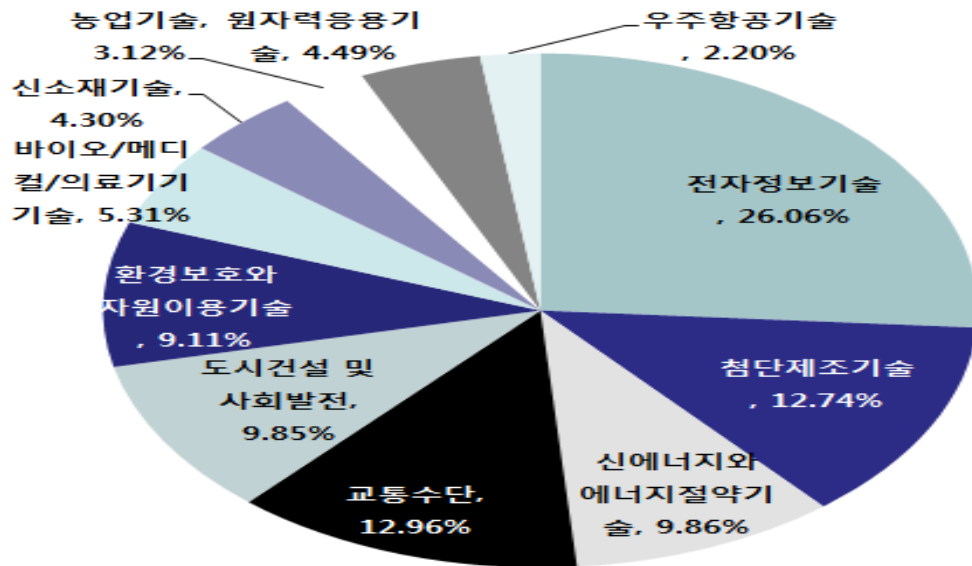
지역	기술판매				기술구매			
	거래수	거래액	증가율	비중	거래수	거래액	증가율	비중
동부지역	203,908	5,230.84	15.83	70.03	19,4715	3,885.88	1.39	52.03
중부지역	40,583	878.21	56.83	11.76	41,630	887.15	29.55	11.88
서부지역	48,151	1,009.92	67.10	13.52	53,572	1,570.05	41.00	21.02
환발해지역	111,150	3,603.72	11.36	48.25	97,195	2,033.28	-7.74	27.22
장강삼각주	68,750	1,140.68	13.96	15.27	73,413	1,199.73	-1.41	16.06
주강삼각주	20,211	534.06	39.23	7.15	23,969	607.66	40.33	8.14

○ 중국 기술거래의 특징

- 전략적 신흥산업과 민생분야의 기술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전자정보, 바이오메디컬, 신에너지, 신소재,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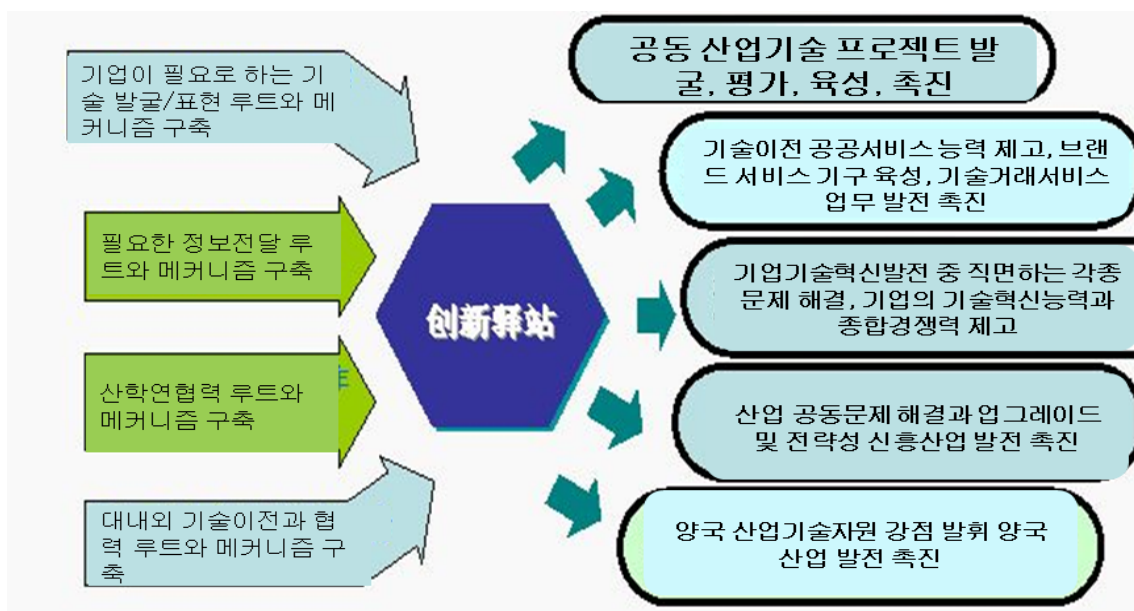
전략적 신홍산업 기술거래액이 4,080.98억 위안(약 3.77억 달러)으로 전체 54.64%를 차지

- 환경보호와 자원이용, 바이오메디컬, 의료기기, 교통수단, 도시건설과 사회발전 등 민생분야 기술거래도 크게 증가됨.



자료: 2014 전국기술시장통계연도보고, 2013년 기술거래액 기준

④ 한중 혁신협력 추진체제를 구축



자료: <http://www.ctmnet.com.cn>

⑤ TBT 협정의 신속한 구체화가 필요

- 한중 FTA 협정에는 WTO 무역기술장벽 협정(TBT) 수준 이상의 TBT 애로 완화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
 -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전기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충족시켜야 하는 적합성평가절차와 관련하여 양국은 IECEE CB Scheme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에 따른 시험소의 시험결과 상호수용을 촉진키로 합의
 - ※ IECEE CB Scheme(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 :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제도로써 통일된 규정(IEC 국제표준)에 따라 발행된 시험성적서를 회원국간 상호 수용
 - **시험·인증기관 설립 지원**; 양국 수출기업에 대한 양질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기관을 상대국에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
 - ※ 시험·인증 비용 및 기간 단축,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서는 국내 적합성 평가기관의 중국 진출이 필요
 - **시험·인증 애로 완화**; 중국 강제인증(CCC인증 등) 취득 관련 우리 업계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시험·인증 비용 및 기간 축소, 시험용 시료 통관 원활화, 기술규정 제·개정시 정보제공 등을 규정
 - 소비자 제품안전 협력; 리콜, 사후관리 등 소비자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제품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규제협력을 강화
- IECEE CB 성적서 수용촉진, 시험용 샘플통관 등 업계의 TBT 애로 해결방안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한중 FTA 협정문에 반영되었으며, 소비자제품 안전, 시험인증기관 설립에 대한 협력 등이 신규로 포함되어 가장 포괄적인 협정문(15개조)을 구성

표 2 무역장벽으로서의 기술규제: 기술무역장벽의 유형과 내용

구분	유형	주요 내용
기술	차별적 기준	현지 조달비율 계산 시 국내외 업체 간 산정방식 차별 적용

규정	적용	
	상이한 표준 적용	국가, 지자체, 공동체 회원국 간 독자적 표준 제도 운영 동일 국가 내 동일제품에 대한 일부지방의 수입금지 조치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제품 표준 및 인증절차가 국제표준과 불일치
	과다한 기술요건	타 국가보다 엄격한 기술요건 설정 까다로운 규격 및 인증 취득절차
	투명성 결여	빈번한 기술규정 개정 및 불충분한 사전공시 기간 설정 등
임의표준		민간기관 중심으로 설정된 자발적 임의표준 적용과 국내시장판매 위한 인증취득에 실질적 강제성 부여
적합성 평가	중복검사	국내 및 국제적 인증 취득 불인정/중복검사 강요 인증제도 이원화
	과다시간 소요	인증마크 획득 시 과다시간 소요 관련 담당자 부족으로 검사 지연
	과다비용 소요	높은 검사 비용 과다한 표본 조사로 인한 비용 증가 중복검사로 인한 비용 발생
	투명성 결여	판정의 일관성 결여(기준의 불분명으로 검사원의 자의적 판단) 경쟁관계에 있는 자국의 민간업체에 의한 검사
상표표시부착		국내 조달비율 표시를 요구, 반수입적 자국산 구매욕구 고취 자국어 표기 의무 표기를 상품 자체에 하도록 요구

○ 다른 국가의 WTO/TBT 협정의 주요 내용

- WTO/TBT 협정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인 원칙과 회원국들의 의무사항을 담고 있음
- 한-미 FTA TBT 협정의 주요 내용
 - ※ 국제표준: WTO/TBT위원회가 채택한 국제표준 개발원칙에 판정의 근거를 두기로 합의
 - ※ 공동협력: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 적합성평가절차: 통신 분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이행시기와 관련하여

여 한국측은 본 FTA 협정이 발효된 후 1년 이내에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합의

- ※ 투명성: 기술규제의 제·개정 시 국내의 이해관계자 외 상대국도 비차별적으로 참여 가능케 함.
- ※ 자동차 표준 및 기술규정: 국제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

- 한-EU FTA TBT 협정의 주요 내용

- ※ 공동협력: 협력강화를 위한 규제협의체의 구성이 가능함.
- ※ 기술규정: 기술규제의 제·개정 시 국내의 이해관계자 외 상대국도 비차별적으로 참여 가능케 함.
- ※ 표시 및 라벨: 통상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증
- ※ 조정 메커니즘: TBT 분쟁 조정자를 지정
- ※ ‘Made in EU’ 표시 불허: 소비자에 대한 선택권 제한 및 기만적 행위 유발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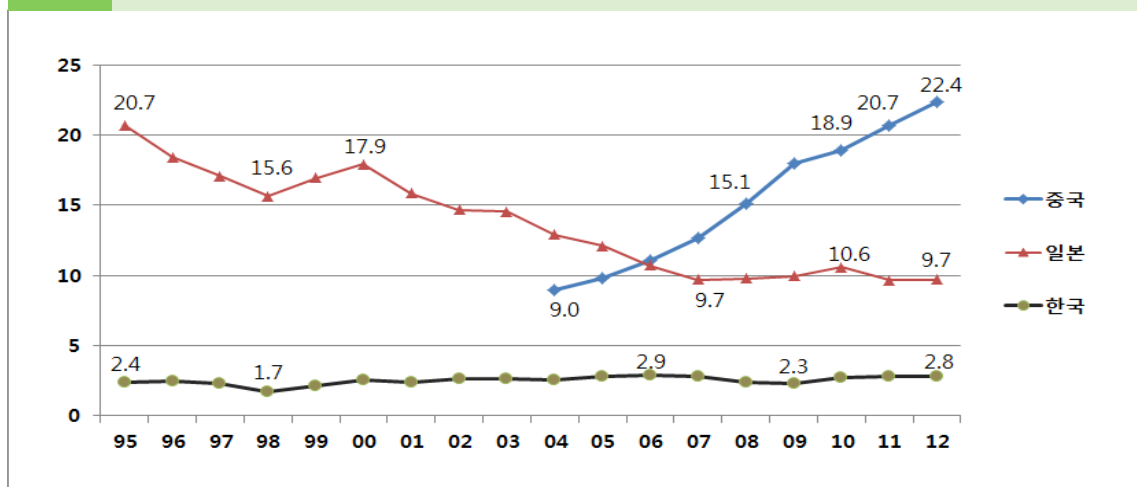
중국 제조업의 추격 현황과 한국의 경쟁력 전망

신성장산업연구실 실장 서동혁

□ 중국 제조업 규모, 2012년에 세계의 22%를 상회

- 2004~12년 중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중국의 비중은 2.5배가 상승
 - 일본의 하락곡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2006년 일본을 추월, 2012년 일본은 세계의 6.7%를 차지
- 한국 제조업은 2000년대 중반까지 소폭상승 후 정체상태
 - 2006년 세계 제조업의 2.9% 비중이 최고 수준, 2012년 세계의 2.8% 차지

그림 1 세계 제조업에서의 한중일 비중(명목부가가치 기준)



□ 세계 수출시장 판도, 독-미-일 3극 체제에서 중국 일극으로 급변

○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중국 점유율은 2004년 일본, 2008년 독일을 각각 추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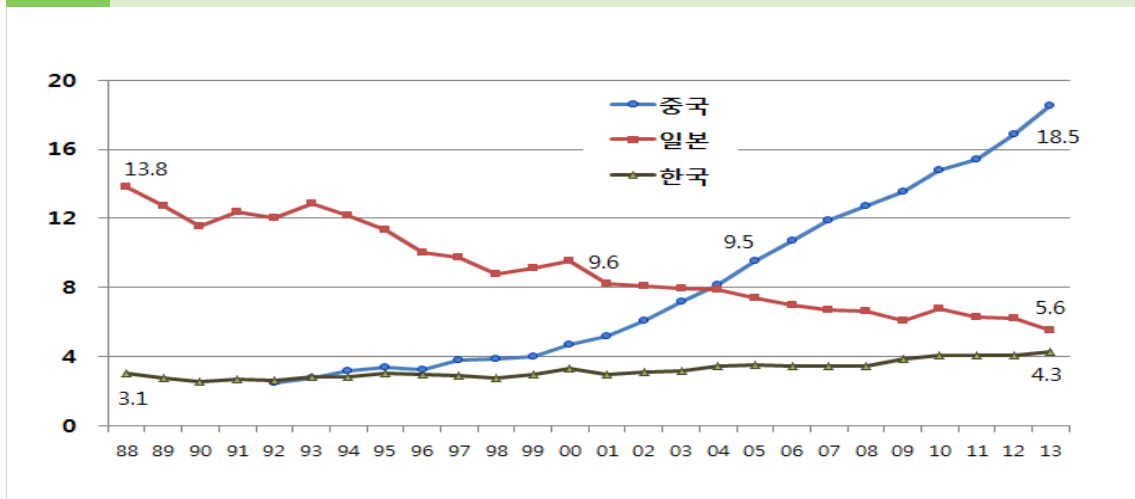
- 글로벌 위기 이후, 중국만 성장하며 격차 확대

※ 2013년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중국 18.5%, 일본 5.6%, 한국 4.3%

- 세계 1위 수출품목 수에서도 중국은 압도적 우위를 보이며 증가세

※ 중국; 1,231('09)→ 1,431('11)→1,485개('12)(국제무역연구원)

그림 2 한중일의 세계 제조업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 한국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포지션 개황

○ 세계시장 점유율 기준, 기계, 소재, IT 등 한국 주력산업은 아직까지 대체로 양호한 경쟁력을 유지

○ 그러나 일부 주력산업에서는 이미 중국에 시장잠식을 당하고 있는 상태

- 철강, 섬유·의류, 통신기기, 디스플레이에서는 중국의 시장잠식 진전

※ 섬유산업에서 중국은 봉제를 넘어 설비투자를 통해 섬유소재(원사, 직물) 품질경쟁력도 강화중

- 일반기계, 조선, 생활가전,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도 경쟁 격화 진입

※ 일반기계산업에서 한국은 유럽, 독일 등 전통적 선진강국에 대한 추격 역량에 한계를 노정

		세계순위	시장점유율	상대적 기술력
기계군	자동차	세계5위	9.1%	독일 대비 90
	조선해양	세계1위	38.1% (물량, 30.2%2위)	100 (화물선 기준)
	일반기계	세계8위	세계수출의 4.7%	독일 대비 70
소재군	석유화학	세계4위	에틸렌 환산 생산능력 5.2%('12)	미국 대비 생산기술 90~100, 공정기술 60~65, 촉매 40
	철 강	세계6위	4.2%(조강생산량)	일본 대비 96
	섬 유	세계8위	세계수출 기준 2.0%('12)	이태리 대비 80
IT군	디지털TV	세계1위	42.3%	일본 대비 100
	대형생활가전	세계3위	약 8%	유럽 대비 90
	통신기기	세계1위	스마트폰36.2%(휴대폰 28.7%)	미국 대비 90.4
	반 도 체	세계2위	16.2% (D램 메모리 62.7%)	미국 대비 84.8
	디스플레이	세계1위	47.0%	일본 대비 91

주: 세계순위 및 시장점유율은 2013년을 기준으로 함.

	이미 시장과 경쟁력 잠식 분야	경쟁력 격차 대폭 축소 분야
자동차	저가 A/S부품	와이어하네스, 와이퍼
일반기계	범용 플라스틱 금형	범용 NC선반, 굴삭기, 로더
조선	벌크선, OSV(해양지원선박)	탱커, 컨테이너선
석유화학		중저가 범용제품
철강	저가 강재(철근, 열연강판 등)	일반 봉·형강/중후판, 합금철 등
섬유/의류	범용 봉제의류®원사®직물	고기능성의류®원사®직물
반도체	팹리스(반도체설계전문), 패키징	
통신기기	피쳐폰, 통신네트워크장비	중저가 스마트폰
가전	LED LCD TV, 전자렌지등 중소형 가전	UHD TV, 곡면TV, 에어컨 등 대형 가전
디스플레이	대형 LCD 패널	고화질 대형 LCD 패널

□ 주요 산업별 한·중 경쟁관계 진단

○ 자동차산업

- 자동차산업, 아직 중국과는 상대적 비경쟁 상태 유지
 - ※ 후발자의 추격이 어려운 대표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선진국과의 격차 축소에 성공
 - ※ 기술, 품질, 숙련인력 면에서 현재까지는 한국이 절대 우위를 유지
- 대표적인 통합형(조율형, integral형) 산업이어서, 메모리 반도체와 더불어 중국의 추격이 가장 어려운 산업에 해당
-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초저가 시장에만 제한적 진입

표 3 주요 산업군의 한중 경쟁관계

	한국 경쟁력 현황	중국과의 경쟁관계	중국의 전략
자동차	빠른 추격자	상대적 비경쟁	초저가시장 중심 공략
일반기계	추격자	느슨한 경쟁	가격경쟁력
조선해양	우세	느슨한 경쟁	범용선박에서 강세
석유화학	후발자	느슨한 경쟁	자급률 강화
철강	추격자	다소 치열	구조조정
섬유	후발자	매우 치열	설비투자 및 구조고도화
메모리 반도체	매우 강력	완전 비경쟁	중국 미진출 분야
시스템LSI	추격자	한국이 후발자	팹리스분야 강화
디스플레이	강력	느슨한 경쟁	대형LCD 투자 확대
스마트폰	강력	느슨한 경쟁	저가 신흥시장 추격
디지털 TV	강력	다소 치열	중저가 제품에서 빠른 추격
대형생활가전	추격자	다소 치열	기술력 및 브랜드 강화
인터넷	추격자	느슨한 경쟁	M&A, 사업다각화
SW	추격자	한국이 후발자	UI소프트웨어의 혁신
게임	강력	다소 치열	내수 및 동남아시아 시장 장악
네트워크	후발자	느슨한 경쟁	로컬기업과의 제휴

○ 조선해양산업

- 물량기준 시장점유율에서 중국은 2010년 이후 이미 한국을 추월해 세계1위로 등극
 - ※ 2014년 상반기에도 시장점유율이 33.9%로 상승하며 0.6% p 차이로 한국에 우위
 - ※ 벌크선 등의 일반 상선, 국내물동량, 가격 등을 무기로 수주량 확대
- 주력분야에서는 아직 경쟁우위를 유지중 : 초대형 화물선, LNG선, 드립쉽 등
 - ※ 금액기준 점유율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근소하게 앞서는 상태
- 한국이 유리한 해양플랜트 시장이 위축될 경우,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 초래 우려

○ 석유화학산업

- 현재까지는 중국과는 보완관계를 형성하며 매우 느슨한 경쟁관계 유지
 - ※ 아직 중국은 자급률이 낮은 특성상 수입에 크게 의존
- 한국은 그동안 중국기업이 미처 생산하지 못하는 분야를 보완 공급하는 보완적 관계를 유지
 - ※ 한국은 대세계 수출품의 80% 이상이 범용제품으로 여전히 가격경쟁력에 의존
- 그러나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따른 수요 감퇴, 자급률 상승, 중동의 공세적 진출 등으로 인해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면서 중국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철강산업

- 중국은 중저가 제품의 대량생산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을 주도
 - ※ 세계 공급과잉 물량의 약 절반이 중국에서 발생
 - ※ 생산량 기준으로는 중국이 세계의 약 절반을 차지 : 46.4%('12) 49.2%('14.상)

- 고기능성 강재 분야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아직 우위
- 중국과의 기술력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면서 향후 고전 예견
 - ※ 중국은 자동차용 강판 개발 투자확대로 추격 가속화

○ 스마트폰산업

- 세계시장에서는 여전히 우세하지만 중국시장에서는 상대적 열세 시현
 - ※ 중국의 특성상 증거가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가 대거 약진중: 중국 브랜드의 내수시장점유율은 '14년 1분기에 약 60%
 - ※ 중국 샤오미, 지난 2분기 국내점유율에서 삼성전자를 첫 추월
- 현재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은 저가 중심의 신흥시장에서 시작된 단계
 - ※ 중국의 빠른 성장으로 프리미엄 폰에서도 계속 시장잠식 우려
 - ※ 세계시장 점유율 격차 근접중: 중국, 24.5%('13)→28.6%('14.상, 상위 10 개사 기준); 한국, 36.1%('13)→31.5%('14.상) (가트너)

○ 디스플레이산업

- 한국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2014년 들어 하락
 - ※ 50.5%('13)→43.6%('14.상) : 중소형에서 중국보다 일본의 점유율이 상승
- 중국은 정부의 적극지원 하에 압도적 설비투자로 한국을 빠르게 추격중
 - ※ 대형 LCD패널 생산능력에서는 이미 일본을 추월한 상태
- 핵심시장인 TV에서 중국 TV브랜드는 자국산 패널 조달비중을 계속 상향중
 - ※ 중국 상위 6대 TV브랜드의 중국기업 패널 조달비율 : 20%('12)→30%('13)
 - ※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중국산 패널 사용비중 : 약 38%('14.1분기)
- 중국 정부는 패널 자급률 목표치를 강화하며 적극 육성

※ 2013년 36%에서 80%(수량, 2015), 80%(면적, 2016)로 공격적 강화

○ 반도체산업

- 메모리 분야에서는 한국이 글로벌 강자로서 중국에 절대 우위
 - ※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이 아직 시장 참여 전단계, 그러나 2020년 이후 시장 진입 예상
-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중국이 우세한 가운데 한중간 느슨한 경쟁 상태
 - ※ 중국은 팹리스(IC설계전문) 세계3위 점유율(%) : 미국(68%;퀄컴 21.1%) > 대만(17.2%) > 중국(7%) > 한국(2.1%)
 - ※ 2013년 세계 팹리스업계 20대 기업 매출 순위 : 중국 하이스(海思, Hisilicon) 및 Spreadtrum이 각각 12위와 16위, 한국은 28위 실리콘웍스가 선두
 - ※ 중국은 정부의 적극 지원에 힘입어 지속 성장 예상
 - ※ 한국의 투자 강화로 한중간 경쟁구도는 점차 치열해질 전망

○ 가전산업

- 세계1위 점유율인 TV는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중이나,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과 다소 치열한 경쟁관계를 형성중
 - ※ 중국 내수시장에서는 중국 브랜드의 압도적 우위 ; 로컬 브랜드와 저가를 선호
 - ※ 중국 6대 브랜드의 내수시장 점유율, 2013년 80%
- 대형 생활가전에서 한국은 세계 3위로 중국보다 월풀, 일렉트로룩스 등 선진기업과 경쟁중
- 중국의 빠른 기술추격, 대량생산 및 브랜드 인지도 강화는 점차 위협적

○ 인터넷산업

- 중국은 BAT(百度, 阿里巴巴, 腾讯) 주도의 성장세 지속으로 한국과의 격차 확대 예상

- ※ 중국정부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및 보호정책으로 국내기업 성장을 지원
- ※ 한중간에는 규제의 체감온도차, 시장규모 격차 등이 상존
- ※ 알리바바, 미국 증시 상장('14.9) 시가총액 : 300조원(12월초) > 페이스북
- ※ 텐센트 & 바이두, 세계 인터넷기업 시가총액 top 10 + 2013 혁신기업 18위와 6위 (Forbes)

- 중국 기업들은 구글을 대체하며 단기간에 자국시장 지배력을 강화
 - ※ HW에서의 속성에서 탈피하여 특유의 혁신성을 과시
- 중국 기업군, 한국시장에서도 지배력 강화 모색: 저가 단말에 이어 온라인 결제, 금융, 전자상거래, 디지털콘텐츠 등 인터넷서비스 시장 관심
 - ※ 텐센트, 온라인게임에 이어 모바일결제시장 진출 추진
 - ※ 알리바바 & 텐센트, 결제, 온라인쇼핑 등의 시장에서 국내기업과 제휴 추진

○ SW산업

- 중국 샤오미, 안드로이드에 기반한 독자 OS기반 구축
 - ※ 매주 금요일 OS업그레이드 SW 개발능력 과시
 - ※ HW가 아닌 SW, 콘텐츠로 승부한 점이 주효
- 한국 SW는 국내시장 의존형 모델로 성장에 한계 우려
 - ※ 취약한 국내시장, 글로벌 스타기업 부재, 우수인력 부족, 열악한 개발 환경 등에 직면
- 게임에서는 치열한 경쟁 전개: 온라인게임(한국), 모바일 게임(중국)

□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 전망

표 4 중국과의 경쟁관계 단기전망 종합				
	경쟁력 격차 대폭축소 분야	5년 이상 경쟁우위 가능분야	중국추격 종합	단기 전망
자동차	와이어하네스, 와이퍼	완성차, 엔진, 변속기 등	☼	기술력과 신뢰성으로 경쟁우위 가능

		핵심부품		
일반기계	범용NC선반, 굴삭기, 로더	머시닝센터, 정밀금형	△	범용 NC선반은 2~3년내 대등
반도체	(한국의 추격) 시스템LSI	메모리	△	-중국의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급성장 추세 -메모리는 압도적 우위 지속
조선	탱커, 컨테이너선	LNG선, FPSO, 드릴쉽	☹	탱커, 대형이하컨테이너선 2년내대등관계
석유화학	중저가 범용제품	중고급제품군	☹	(중국이 아닌) 중등산 제품과 경쟁 심화
통신기기	중저가 스마트폰	고급형 스마트폰	☹	중국 스마트폰, 2년내 세계1위 점유율 도약
가전	UHDTV, 곡면TV, 에어컨 등 대형 가전	OLED TV, 프리미엄 대형 가전	☹	-한중 기술격차, 빠르게 축소 -자국시장 확대→중국의 세계시장점유율 상승 지속
디스플레이	LCD패널	AMOLED, 소재, 기타 응용제품	☹	LCD는 2~3년내 대등관계
철강	일반 봉·형강/중후판, 합금철 등	차량/가전/에너지용 고기능성강재	☂	자동차용 강판 투자→ 중국의 고부가가치 철강재 추격가속화
섬유/의류	고기능성 의류·원사·직물	산업용 섬유제품	☂	고기능성 의류·원사·직물, 3-5년내 한국추월

※ 중국추격 종합 : ☹ 한국우위 > △ 경쟁 확산 > ☹ 경쟁 심화 > ☂ 한국열세 지속

○ 글로벌 시장에서 상승 기대 산업

- 향후 5년 이후 중장기 경쟁력 전망시 거의 모든 산업에서 중국이 최대경쟁국으로 부상
 - ※ 메모리반도체만 유일하게 중국과 비경쟁 상태 유지 예상
- 12개 산업중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상승 또는 현상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9개
- 향후 5년 사이 한국 경쟁력 상승산업은 일반기계가 유일, 그러나 중국과 경쟁에 직면
 - ※ 유럽기업의 틈새시장 진출강화, 일본과의 격차 축소 기대

※ 머시닝센터, 정밀금형, 지능형 로봇 등 융복합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 추세

표 5 중기적 경쟁력의 상승 전망 산업					
		중기 변화 전망		장기 전망	최대경쟁국 변화 (현재→중장기)
		2013	2018		
경쟁력 상승	일반기계	8위	6~7위	다소 하락	일본 → 일본, 중국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 글로벌 시장에서 현상 유지 산업

- 기타 주력산업은 빠른 추격자나 후발자로 위치, 그러나 모두 중국이 최대 경쟁국이 될 것으로 예상

※ 자동차산업은 현재 국내 주력산업중 가장 주목되는 빠른 추격자

※ 시스템반도체는 중국과의 경쟁속에서도 장기적 경쟁력이 상승 기대

표 6 중기적 경쟁력의 현상유지 전망 산업					
		중기 변화 전망		장기 전망	최대경쟁국 변화 (현재→중장기)
		2013	2018		
경쟁력 현수준 유지	자동차	5위	5위	6~7위	일본 → 일본, 중국
	철강	6위	5위	5위	일본 → 중국
	스마트폰	1위	1위 (점유율 2위)	2위(?)	미국 → 중국
	디지털 TV	1위	1위	2위	일본 → 중국
	대형생활가전	3위	3위	3위	유럽 → 유럽, 중국
	메모리	1위	1위	1위	일본 → 일본
	시스템 LSI	4위	4위	3위	미국 → 중국
	디스플레이	1위	1위	1위	대만 → 중국
인터넷/sw	3~4위권	4위권	4위	일본, 중국→일본, 중국	

○ 글로벌 시장에서 약화 예상 산업

- 그동안 수출 견인차였던 조선산업은 중국에 추월당할 수도 있음.

※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범용선박의 핵심경쟁력은 ‘가격’으로 중국이 절대 우위

※ 해양플랜트 시장이 확대되지 않으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크게 불리

- 석유화학은 중동세의 생산 확대, 중국의 자급률 강화 등으로 입지 축소 우려
 -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해외거점 확보, 스페셜티 제품 비중 확대로 경쟁력 소폭 향상도 가능
- 섬유의류는 상당분야 경쟁력 상실 예상: 섬유소재 품질에서도 중국은 빠르게 성장 예견
 - ※ 동남아(봉제의류), 중국(기능성 섬유) 등 경쟁국이 다변화될 전망

표 7 중기적 경쟁력의 약화 전망 산업

		중기 변화 전망		장기 전망	최대경쟁국 변화
		2013	2018		
경쟁력 약화	조선해양	1위	2위(금액)	2위	중국
	석유화학	4위	5~6위	소폭 상승	중동 → 중동, 중국
	섬유의류	8위	9위	10위	중국

□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과제

① 차별적 수출역량의 강화

○ 중국일본과 차별화된 수출경쟁력의 강화는 매우 중요

- 산업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중견중소기업 수출능력의 강화 시급
-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제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약 43%

○ 글로벌화가 요구되는 한국 산업은 수출역량 배가 필요

- 수출 실적이 좋은 기업일수록 이익, 수출, 브랜드력에서 글로벌화 성과도 양호
- 대기업과 동반진출 기업일수록 거래확대 관점에서 양의 유의한 글로벌화 성과자료(산업연구원 서베이 결과)

② 수출전략의 혁신 강화

○ 고객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출전략 강화도 병행필요

- 수출형 소비재 산업의 전략적 육성, 소비재의 수출산업화
- 한류 활용, 소비재, 연령별/소득별 맞춤형 제품, 융합제품 등의 수출시장 개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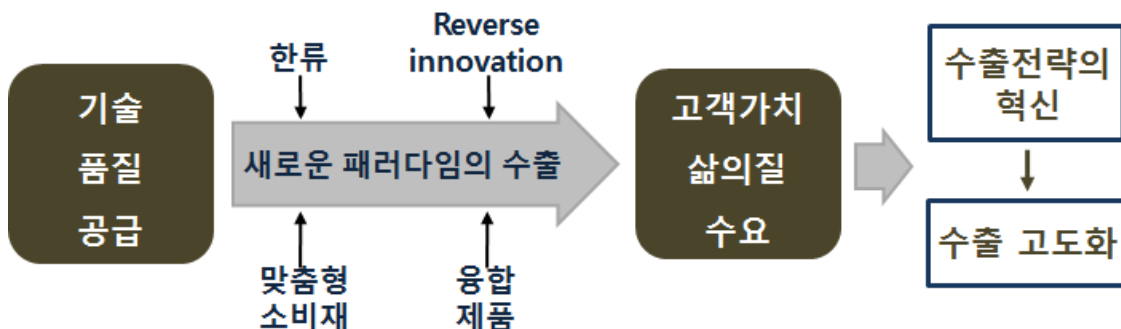
○ 기존방식의 대중 수출확대 한계에 차별화된 대안 마련 시급: 패키지형, 서비스 결합형 등

- 중국 경제성장률 1% 하락→한국의 총수출 1.3% 감소(자동차 -3.02%, 자동차부품 -2.27%, 석유화학 -1.44%)
- 중국 총수출 1% 감소→한국의 대중 수출 기계 0.13%, 철강 0.32%, 휴대폰 0.34% 씩 감소

○ 거대 잠재시장인 중국, 동남아에 대한 내수형 소비재 수출 확대

- 화장품, 식품, 패션의류, 영유아 용품, 가정 인테리어제품, 주방용품, 가정용 보일러 등의 잠재 유망상품 개발
- ※ 가공단계별 대중 수출구성(2012년, %): 소비재 3.5, 자본재 23.6, 중간재 72.3

그림 3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수출전략의 혁신



③ 제조의 혁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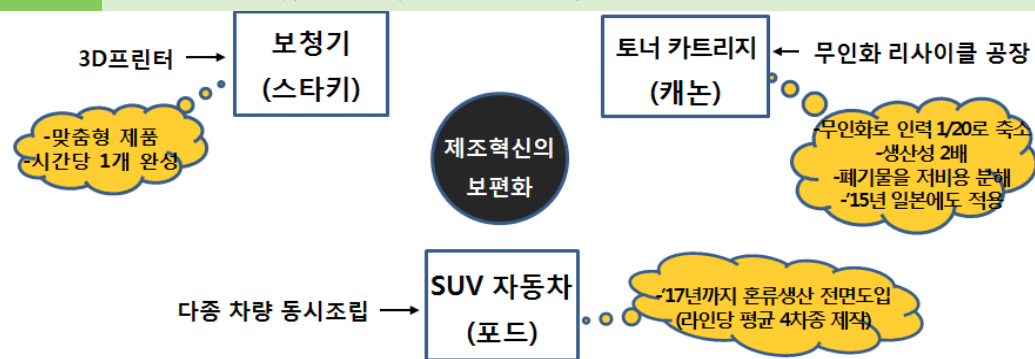
○ 스마트 factory를 넘어 스마트 Manufacturing 시대에 선제적 대비

- 미국 보청기, 복합기, 자동차 공장에서 혁신적 제조방식이 보편화되기 시작

○ 생산성 제고, 고객지향성 강화, 가치창출 등 미래 제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생산 혁신능력의 축적이 긴급

-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스마트그리드 등 혁신수단 기술개발

그림 4 미국 제조업 현장의 생산혁신 사례



④ 글로벌 가치사슬의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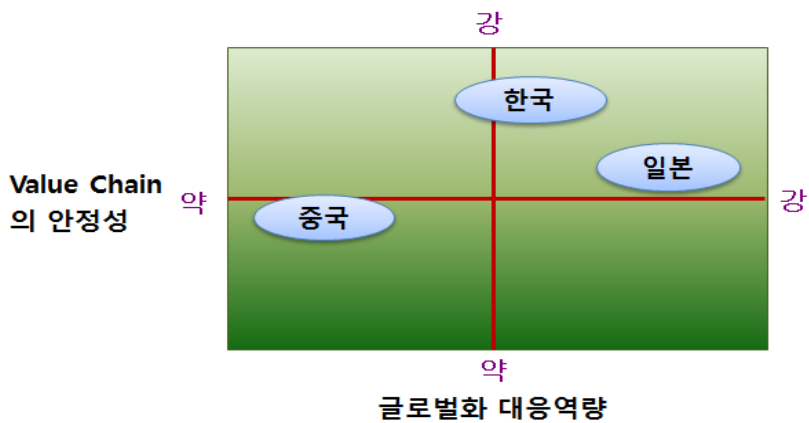
○ 국내외 기업간, 국내외 거점간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 적극화

- 글로벌 가치사슬의 안정적 구축 강화는 수출경쟁력 강화와 직결
- 최근 스마트폰, 자동차의 해외생산 강화는 핵심 부품의 수출확대를 유발

○ 한국산업의 최대 취약점인 후방산업 경쟁력의 강화 시급

- 일-중간 샌드위치 탈피를 위해서는 up-stream 분야의 혁신역량 강화 필요: 융합부품, 지능형 제품, 서비스 플랫폼(임베디드 미들웨어), 인공지능 SW 등

그림 5 한중일 제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안정성 수준



⑤ 차세대 핵심분야 육성

○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핵심분야의 집중육성 전략이 시급

- 융합화, 스마트화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 역량의 강화 중요
- 미래 제조업에 필요한 분야는 산업적 파급영향이 큰 king pin이나 linch pin
- 혁신적 파괴력, 전후방 연계효과, 고부가가치화 등이 기대되는 핵심링크 형 분야의 육성만이 향후 글로벌 시장리더십 확보 기회를 제공
 - ※ 스마트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오감로봇? 홀로그램 기기?
 - ※ 모바일 플랫폼 O2O(Online to Offline) 생태계?

그림 6 수출경쟁력, 글로벌화의 핵심 역량





국무원, 7개 분야에 대해 민간자본 투자 장려

- 국무원은 2014년 11월 《국무원의 중점분야 투융자체제 혁신을 통한 사회 투자 장려에 관한 지도의견(国务院关于创新重点领域投融资机制鼓励社会投资的指导意见)》(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해 환경보호, 농업수리, 도시 인프라, 교통, 에너지, 정보, 사회공공사업 등 7개의 중점분야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 장려 조치를 내놓음.
- ‘지도의견’은 시장 진입 규제 완화와 투융자 제도의 개혁을 주축으로 7개 분야에 대해 민간자본의 투자 방향과 방법을 제시함.

□ 산업별 ‘지도의견’의 주요 내용

- 투융자 체제 혁신을 통해 사회사업, 자원환경, 생태보호, 인프라시설 등 국가발전 중점분야에 대한 민간자본, 특히 민간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정책을 제정
- 공공분야의 시장 독점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어 공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자본의 투자를 장려함.
- 시장 진입 규정을 통일하고 평등한 투자기회를 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투자/운영체제 혁신을 통해 민간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한편, 정부의 투자 및 운영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고 융자 통로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임.

① 생태보존 및 환경보호산업

- **임업관리체제:** 산림지역의 관리체제 개혁을 추진하여 산림 경영 및 벌채 관리제도를 개선함. 특히 집체산림소유권(集体林权) 제도의 심화 개혁을 추진하고 산림지 경영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산림소유권의 유통 원가를 낮추고 합법적인 소유권 운용을 장려함.
- 생태 조성에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가정농가, 농민합작사, 임업기업 등이 생태 조성 사업에 투자하도록 지원하고, 민간자본이 황무지에 식수/조림사업을 통해 다른 경제활동(산림 관광 등)을 할 수 있도록 허가
- 환경오염 처리의 산업화를 추진함. 전력산업, 철강업 등 오염 배출이 많은 산업과 개발구 공업단지는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외부 전문 환경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 시행함.
- 오염배출권,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간자본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주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비용 징수 기준을 조정하여 차별화된 배출 비용 정책을 시행

② 농업, 수리사업

- 민간자본이 프랜차이즈, 지분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절수 및 상수도 사업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농업, 수리사업에 대한 투자 수익의 안정성을 보장함.
- 농경 수리사업, 수토보존시설, 절수시설, 상수도 등 중대 수리사업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은 정책적으로 국유자본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이에 대한 경영수익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음.
- 공익사업인 경우, 사업 투자와 유지보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며, 각종 우대 정책을 제공함.

- 민간자본은 투자, 건설, 운영하는 수리시설 등 사업에 대한 권리를 상속, 양도, 재하청하거나 담보물로 사용할 수 있음.
- 수권(水權: 수자원 이용권 및 수익 소유권)제도 개혁을 통해 민간자본이 수자원의 개발, 이용 및 보호사업에 진출하도록 유도함.

③ 도시 인프라시설

- 도시 인프라시설 건설 및 운영 사업체의 재무 독립, 경영 독립을 추진함. 기존 사업별로 나누어진 분산식 운영 방식에서 통합식 운영으로 관리 방식을 전환하여 경영원가를 낮추고 투자효율을 제고할 방침
- 민간자본은 프랜차이즈 형태나 투자 지원, 정부조달서비스 등 방식으로 도시 수도, 난방, 가스 공급 및 오수/쓰레기 처리, 건축쓰레기 재활용, 공원 부대사업, 대중교통, 주차장 시설 등 도시 인프라시설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이미 완공된 인프라사업의 경우, 각 지방정부는 위탁 경영 혹은 TOT(인수-운영-양도) 방식으로 민간자본에게 경영을 맡길 수 있음.
- 특히 신형도시화로 인해 농업인구 유입 수요가 큰 중소도시에서는 민간자본의 도시 인프라시설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
- 공공시설의 가격체제를 개선해 투자자와 경영자가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필요시 지방정부가 운영 보조금을 지원

④ 교통인프라

- 철도, 도로, 수운, 민간항공 등 교통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융자제도를 개선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가격체제를 개선해 민간자본이 운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함.
- 지방정부와 민간자본에게 시외 철도, 시내 철도, 자원개발용 철도, 철도 지선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권을 개방함.

- 도시 전철역 근처, 지하철과 연결된 지상건물 등 종합토지개발을 추진하여 도시레일교통 건설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함.
- 도로 유료통행 정책을 개선하여 민간자본을 도로 건설에 끌어들이고, 각종 투자 지원 정책을 통해 민간자본이 항공전자시스템, 항구 및 내륙항운시설 건설에 투자하도록 장려함.
- 수익성이 좋은 허브 공항, 간선공항 건설과 공항 부대서비스시설 건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함.

⑤ 에너지시설

- 입찰 방식을 통해 민간기업이 수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원자력설비 연구제작과 관련 서비스분야, 풍력•태양열•바이오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장려함.
- 다지역간 전력 수송관, 지역 송전망과 중•대도시의 배전망 사업, 특히 분산전원 전력망, 에너지 스토리지, 전기자동차 충전소 시설 건설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장려함.
- 천연가스 수송관과 저장시설, 석탄 저장•운송장치의 건설 및 운영에 민간자본을 유치함. 민영기업과 지방 국유기업의 천연가스 수송관, LNG 인수기지, 지하저장고, 도시배기관 그리드, 도시가스저장시설에 대한 지분참여를 지원함. 원유와 완제유의 상업저장고에 대해서는 지분통제를 실시할 수 있음.

⑥ 정보산업 및 민간 위성산업

- 텔레콤 분야를 민간자본에게 개방하여, 민간자본이 인터넷망 구축과 서비스 운영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민영기업의 모바일통신 전매(轉賣)업무를 시범적으로 시행함.
- 정보산업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확대하여, 텔레콤기업에

민간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상업용 측지위성 제작, 발사 및 운영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를 장려하고, 민간자본이 GPS 구축에 참여하도록 지원함.

⑦ 사회사업

- 양로산업, 문화산업, 체육·관광업, 의료업 등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립 기관 분류체제를 개혁하여 민간자본의 진입 환경을 조성하고 공립 기관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함.
- 민간자본은 독자, 합자, 합작, 공동경영, 임대 등의 방식으로 교육, 의료, 양로, 체육문화시설 건설사업에 진출할 수 있음. 의료보험은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이 지정된 범위 내에서 진출 가능
- 비영리성 교육, 의료, 양로, 체육문화사업에 종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세금과 행정수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민영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의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 공과금은 공립기관과 동일한 가격을 적용함.
- 의료, 양로 등 서비스 가격과 영리성 교육기관의 수업료는 경영자가 가격을 정할 수 있으며, 비영리성 학교의 학비는 지방정부가 현지 시세를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제시함.

□ 추진 체계와 운영

○ 민관협력(PPP) 체제 수립과 정부지원

- ‘지도의견’의 7개 분야가 사회복지와 환경오염, 공공재 공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민관협력 방식을 적극 추진하여 공공재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함.
- 민관협력 관련 법률규정과 보조금 정책 정비와 PPP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간기관의 선정과 가격 관리, 수익배분 방식, 위약에 대한 처벌 등 세부적인 규정을 제정

- 정부는 중요한 공익성 사업이나 기초시설 건설에 직접 투자를 진행하며, 그 외 민간자본에 개방한 7개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투자금액 보조, 신용보조, 대출이자 보조 등 방식으로 민간자본의 투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함.

○ 투융자 방식의 혁신

- 오염배출권, 집체산림소유권, 프랜차이즈 경영권, 구매협상에 대한 기대 수익, 토지하청경영권 등에 대한 대출 담보신용을 제공
- 신용담보, 대출이자 보조, 장려금, 위험보상금, 비용 보조, 투자기금, 농업 보험 등을 통해 농민합작사와 가족농장, 농림업 기업의 대출 담보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임.
- 정책성 금융기관의 지원을 강화하고, 주식투자기금과 창업투자기금의 발전을 장려함. 민간자본은 공공서비스, 환경보호, 인프라 건설, 지역개발, 선진제조업 등 분야 진출 시 산업투자 사모펀드를 설립할 수 있음.
- 채권투자계획, 주식투자계획, 자산지원계획 등 융자 수단을 진흥시키고, 중점분야 건설사업은 프로젝트수익채권, 회사채, 중기어음 등을 도입하여 채권시장을 통한 투자기금 조달을 지원함.
- 철도, 도로, 공항 등 교통인프라 사업에 진출한 기업은 외상매출금의 증권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표 1 관련 정책 발표 현황 및 계획

	관련 정책	주관부처	발표일시
1	환경오염 제3자 처리 정책 (大力推行环境污染第三方治理)	발개위, 환경보호부	2014년 말
2	오염배출권,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시행 추진 및 민간자본의 참여 장려 정책 (推进排污权、碳排放权交易试点, 鼓励社会资本参与污染减排和排污权、碳排放权交易)	재정부, 환경보호부, 발개위, 임업국, 증감회(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책임부처는 발개위)	2015년 3월 말 발표 예정

3	절수 및 수도공급 중대 수리사업 건설, 운영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 장려 실시의견 (鼓励和引导社会资本参与节水供水重大水利工程建设运营的实施意见)	수리부, 발개위, 증감회	2015년 3월 말 발표 예정
4	특정 주요 현, 중점 진 대상 도시 인프라시설 건설 및 운영의 시장화 정책지원 강화 (选择若干县城和重点镇推行试点, 加大对市政基础设施建设运营引入市场机制的政策支持力度)	주택도농건설부, 발개위	2014년 말
5	기업 입찰 등 방식을 통한 민간자본의 수력발전소, 양수발전소 투자 장려 (通过业主招标等方式, 鼓励社会资本投资常规水电站和抽水蓄能电站)	에너지국	2014년 말
6	광대역 인터넷 접속망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 지원 (支持民间资本投资宽带接入网络建设和业务运营)	공업정보화부	2015년 3월 말 발표 예정
7	사회투자사업에 대한 정부 투자 지원 관리방법 (政府投资支持社会投资项目的管理办法)	발개위, 재정부	2015년 3월 말 발표 예정
8	융자방식 혁신 및 확대 (创新融资方式, 拓宽融资渠道)	인민은행, 은감회, 증감회, 보감회, 재정부	2015년 3월 말 발표 예정
9	중앙예산내 투자 등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점분야 산업투자기금 관리방법 (政府使用包括中央预算内投资在内的财政性资金, 支持重点领域产业投资基金管理办法)	발개위	2015년 3월 말 발표 예정
10	가격형성체제 개선 및 중점분야 건설에 대한 사회투자 유치 강화 (完善价格形成机制, 增强重点领域建设吸引社会投资能力)	발개위, 국무원 관계부처	2015년 3월 말 발표 예정



□ 11월 중국 공업 부가가치 전월대비 0.5% 포인트 또 폭락

- 2014년 11월 중국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7.2%로 전월대비 0.5% 포인트 하락하면서 3개월째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
 - 그중 광업은 3.0%, 제조업은 8.1%, 전력·가스·수도는 3.2%를 각각 기록,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광업은 3.4% p, 제조업은 2.4% p, 전력·가스·수도는 3.7% p가 각각 하락한 수치
 - 1~11월 소유제별로는 국유기업 5.0%, 집체기업 1.8%, 주식제기업 7.3%, 사영기업 10.3%, 외자기업 6.4%의 성장률을 기록, 집체기업의 침체가 극심
- 연초 대비 재고율이 크게 늘어난 제품들은 유제품(32.2%), 소프트 드링크(36.9%), 휘발유(30.5%), 평판유리(33.6%), 승용차(52.8%), 자전거(38.6%), 음향기기(42.4%), 디스크 플레이어(70.2%) 등
 - 연초 대비 재고율이 크게 감소한 품목들은 화학 원료(-12.5%), 중형 트랙터(-9.4%), 선풍기(-17.0%), 레인지후드(-20.0%), 가정용 공기정화기(-13.6%) 등
- 소재, 설비, 가전제품 등 대부분이 부진한 상태를 시현
 - 소재산업에서는 방직(-2.4%), 에틸렌(-6.4%), 조강(-0.2%)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반면, 화학섬유(6.2%)와 비철금속(7.9%)은 성장세 유지

- 기계설비에서는 소형 트랙터가 -15.2%로 금년 들어 줄곧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대기오염방지설비 증가율은 8.6%로 다시 플러스로 전환
- 자동차는 2.6%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승용차는 -4.5%로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를 시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조선은 19.5%의 고성장률을 기록
- 전자에서는 컬러TV(-6.5%), 세탁기(-6.4%), 냉장고(-6.8%), 컴퓨터 등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한 반면, 반도체(14.9%), 에어컨(8.2%)은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 핸드폰은 -0.3%로 정체

○ 소매업은 12.0%로 전월대비 0.3 포인트 상승, 음식숙박업은 9.8%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택배 수량이 1억개를 돌파하면서 우편업은 30%대의 고성장세를 지속

표 1 중국의 주요 업종별 생산 동향 (전년동기비, %)

업종별	2013년			2014년					
	상반기	3/4분기	연간	상반기	3/4분기	9월	10월	11월	
공업 전체	9.3	9.6	9.7	8.8	8.5	8.0	7.7	7.2	
섬유	섬유사	8.8	7.5	7.2	8.7	8.0	3.6	1.7	0.5
	방직	9.0	7.2	4.6	3.0	2.7	0.5	-1.0	-2.4
	화학섬유	5.8	7.5	8.1	7.5	7.3	3.3	5.9	6.2
화학	에틸렌	4.6	6.4	8.5	5.3	7.5	14.1	11.0	-6.4
	플라스틱원료	7.8	10.3	11.0	11.5	11.4	9.2	6.7	5.5
	플라스틱제품	8.2	8.8	8.0	6.4	7.8	7.2	6.3	5.7
철강	선철	5.7	6.9	6.2	0.5	0.4	-0.5	-3.1	0.9
	조강	7.4	8.0	7.5	3.0	2.3	0	-0.3	-0.2
	강재	10.2	11.7	11.4	6.4	5.0	1.7	2.0	1.2
비철금속	10.0	9.8	9.9	5.4	6.6	8.2	4.8	7.9	
기계	금속절삭기계	-12.4	-9.2	-2.0	5.0	5.0	4.1	-1.4	0
	소형 트랙터	8.4	5.9	4.9	-11.1	-12.6	-14.3	-17.0	-15.2

	대기오염방지설비	8.0	4.0	-3.1	14.2	14.0	13.0	-4.6	8.6
	발전설비	-5.1	-3.3	-4.8	2.9	12.0	7.9	-5.2	0.2
자동차		15.2	15.3	18.4	10.9	9.3	4.5	6.8	2.6
조선		-28.1	-24.6	-24.7	0.2	4.6	31.3	7.3	19.5
전자	세탁기	6.9	7.3	8.2	-3.6	-3.8	-10.3	-3.6	-6.4
	냉장고	18.5	10.6	10.6	0.7	1.9	-4.8	0.2	-6.8
	에어컨	0.1	8.0	11.6	16.3	13.9	7.8	8.3	8.2
	컬러TV	5.2	2.0	-0.2	12.6	11.0	7.0	-5.5	-6.5
	컴퓨터	6.4	8.4	7.8	7.5	2.2	1.1	-3.8	-11.6
	반도체	9.8	9.3	10.4	9.2	9.1	9.7	14.3	14.9
	핸드폰	22.6	24.0	25.8	14.0	11.1	7.6	1.0	-0.3
서비스	화물운수	9.3	9.8	10.0	7.5	7.7	9.0	4.8	7.1
	여객운수	5.7	5.8	5.6	2.5	3.3	4.5	5.0	5.2
	우편 ³⁾	30.1	31.8	33.8	35.1	34.3	34.3	34.7	-
	통신 ³⁾	7.9	7.8	7.5	15.1	15.0	15.0	15.3	-
	소매업	13.2	13.4	13.6	12.4	12.3	11.9	11.7	12.0
	음식숙박업	8.7	8.9	9.0	10.1	9.7	8.7	9.7	9.8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월보」, 각 월호

- 주 : 1) 공업 전체는 부가가치증가율
 2) 비교가격 기준으로 계산
 3) 각월 1월부터 누계 기준

□ 12월 중국 민간 제조업 PMI 지수, 6개월만에 임계치 하회

- 12월 중국 관방 제조업 PMI 지수는 50.1로 전월대비 0.2 p 하락하면서 3개월째 하락세를 지속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1.4로 전월대비 0.2 포인트 하락, 중형기업은 48.7로 전월대비 0.3 p 상승, 소형기업은 45.5로 전월대비 2.1 P 하락하면서 대기업과 소기업간 경기체감 차이가 심각
 - 생산지수(52.2)는 전월대비 0.3 p 하락, 신규주문지수(50.4)는 전월대비 0.5 p 하락, 원자재재고지수(47.5)로 전월대비 0.2 p 하락
 - 수출 신규주문지수는 49.1로 전월대비 0.7 p 상승, 수입지수는 47.8로 전월대비 0.5 p 상승

- 종업원지수는 48.1로 전월대비 0.1 p 하락, 제품재고지수는 47.5로 전월대비 0.2 p 하락하여 고용과 재고 상황이 여전히 심각

○ 한편, 11월 HSBC(汇丰) PMI지수는 49.6으로 6개월만에 임계치를 하회

- 국내 신규주문지수는 하락세, 신규 수출주문지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총량은 감소세
- 기업들의 신규 고용은 14개월째 위축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들의 재고량 역시 5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면서 고용과 재고 모두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
- 물가 안정세와 함께 국내 내수가 위축되고 있으므로 중국정부는 적절하게 통화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HSBC 전문가는 강조

○ 11월 중국 관방 제조업 PMI 지수는 50.3으로 전월대비 0.5 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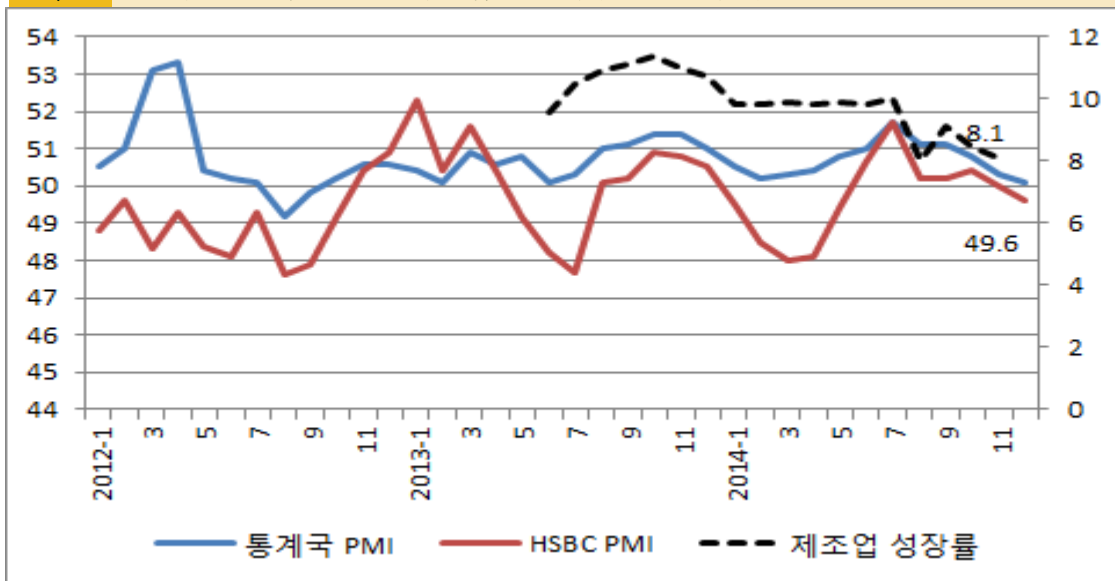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1.6으로 전월대비 0.3 포인트 하락, 중형기업은 48.4로 전월대비 0.7 p 하락, 소형기업은 47.6으로 전월대비 0.9 P 하락하는 등 모든 기업들이 하락세를 시현
- 생산지수(52.5)는 전월대비 0.6 p 하락, 신규주문지수(50.9)는 전월대비 0.7 p 하락, 원자재재고지수(47.7)로 전월대비 0.7 p 하락
- 수출 신규주문지수는 48.4로 전월대비 1.5 p 급락, 수입지수는 47.3으로 전월대비 0.3 p 하락
- 종업원지수는 48.2로 전월대비 0.2 하락, 제품재고지수는 47.2로 전월대비 0.7 p 하락하여 고용과 재고 상황이 악화

○ 한편, 11월 HSBC(汇丰) PMI지수는 50.0으로 전월대비 0.4 p 하락

- 신규주문지수와 신규수출주문지수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나 상승 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고, 고용과 재고 모두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

- 제조업의 성장동력은 약해지고 있는 반면,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11월 21일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조치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제조업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중국경제의 하방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확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HSBC 전문가는 강조

그림 1 중국 관방 및 민간 제조업 PMI지수 변동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www.stats.gov.cn); Markit, HSBC(www.markiteconomics.com)



□ 2015년 철강산업 공급과잉 여전히 난제

- 2014년 중국 철강업계는 공급과잉, 대출 긴축정책, 오염배출 규제 강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냄.
 - 2014년 중국은 연간 8억 톤에 달하는 철강을 생산하였으나, 실제로 이용된 철강은 70~80%에 불과함.
 - 게다가 현재 중국의 철강 생산능력은 연간 12억 톤으로 유휴시설이 많은 상황
 - 중국 철강기업은 총 500여개이며, 그 중 200여개 기업이 초과생산설비 문제를 안고 있음.
 - 장강증권(長江證券)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철강 유통 부문의 재고량은 885만2,400톤으로 전년대비 28.75% 감소해 200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철강기업의 재고량은 1,470만 9,000톤으로 14.25% 증가해 2009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냄.
 - 대부분의 철강기업들이 시장 수요 감소에 신속히 대응해 생산량을 조정하지 못한 것이 원인
- 중국야금공업규획연구원(冶金工业规划研究院)은 작년 12월에 발표한 《

2015년 중국 철강수요예측성과(2015年我国钢铁需求预测成果)》에서 2015년 중국 철강 수요량이 1.41% 소폭 증가해 7억 2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철강 수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산업 중, 철강 수요 비중이 가장 큰 건축업과 기계산업의 2015년 수요량은 각각 3억 9,500만톤과 1억 4,400만톤으로 1.28%, 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그 외 자동차, 가전, 조선, 철도산업의 수요도 각각 5%, 4.8%, 3.8%, 3.8%로 큰 폭의 증가가 예상
- 철강석 수요량은 약 11억 5,700만톤으로 증가율이 1.6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나, 철광석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2015년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6.4% 증가해 10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철광석시장이 전반적으로 심각한 공급과잉 사태에 처해있어 2015년 철광석 가격이 2014년보다 더 떨어져 70~80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중국야금공업규획연구원 리신창(李新创) 원장은 철광석 가격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많은 중소광산이 폐광되어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것이므로, 철광석 가격이 60달러 이하로 하락해도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
- 중국의 초과생산설비 해소에는 은행채무, 근로자 일자리, 현지 정부의 세수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간단하게 해결되기가 곤란한 문제
- 현재로서는 환경보호 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하여 오염배출이 심한 낙후된 생산시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시장경쟁을 통해 경쟁력이 있는 기업만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 상하이자유무역구 자동차병행수입 시행

○ 상하이시 상무위원회(上海市商务委员会)는 1월 7일 《중국 (상하이)자유무

역시험구의 자동차병행수입 시범 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이번 정책 조치로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등록된 자동차판매상은 외국 자동차브랜드의 공식 수입업체가 아니더라도 외국 자동차의 수입 및 판매 업무를 할 수 있게 됨.
- 자동차병행수입은 그동안 중국 내에서 암암리에 시행되던 자동차 밀수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현재 중국 자동차 수입 중 자동차병행수입(밀수 방식)이 약 10% 정도로 파악됨.
 - 현재까지 중국의 병행수입차는 주로 다론허(大連港)과 텐진항(天津港)을 통해 수입되었음. 중국 병행수입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텐진항은 작년 약 7만대를 수입했으며, 다론허는 매년 만여대의 병행수입차가 들어와 전국 각지로 판매됨.
 - 병행수입차와 공식 수입업체를 통해 들어온 수입차는 일반적으로 판매가격이 15~20% 정도 차이가 나며, 보통 가격이 높을수록 가격차이도 큼.
- 자동차병행수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상무부로부터 자동차수입자동허가증(汽车进口自动许可证)을 받아야 하며, 신청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자동차 판매업에 5년 이상 종사, 최근 3년 연속 흑자 기록, 지난 회계연도의 자동차 매출액 4억 위안 이상인 기업
 - 자동차 유지보수 및 기타 서비스, 부품 공급망과 관련 시설을 갖춘 기업 (이를 구비하지 않은 기업은 자유무역구 내 제3자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봄)
 - 양호한 기업 신용, 구매 채널, 자동차판매서비스업 경험을 보유한 기업
 - 자유무역구 내에 등록된 자동차 판매를 할 수 있는 완전출자 자회사 또

는 지주회사

○ 그동안 병행수입차는 가격이 싸지만 애프터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아 품질 문제가 발생해도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상하이자유무역구는 신청조건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둬.

-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 자동차병행수입을 하는 판매상은 고객에게 공식 대리점과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하고, 반드시 3C인증을 획득한 자동차를 판매해야 함.
- 또한 판매하는 병행수입차에 대한 품질추적의 책임을 지며, 제품 리콜, 품질보장, 애프터서비스, 교환환불, 연료소모량 측정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 자동차병행수입의 시행은 수입차 가격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나 그동안 공식 수입업체들이 장악하던 수입차 가격 독점권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임.

-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 요구하는 3C인증 등 자동차 한 대에 필요한 인증비만 5만 위안에 달할 정도로 원가가 높아 중소형 자동차 판매상이 실제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
- 게다가 《자동차브랜드판매관리실시방법(汽车品牌销售管理实施办法)》에 따르면, 국내외에 이미 등록되었거나 사용된 차량은 중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자동차병행수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해외에 등록된 차량은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자동차병행수입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중국, 희토류 수출쿼터제 폐지, 실질적 영향력은 크지 않을 듯

○ 중국은 2015년부터 희토류에 대해 수출쿼터제를 폐지하고 수출허가증제도를 시행함. 즉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수출허가증을 받을 수 있게 됨.

- 2014년 12월 말,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15년 수출허가증관리화물목록(2015年出口许可证管理货物目录)》과 《2015년 수출허가증 관리화물 등급별 증서발급목록(2015年出口许可证管理货物分级发证目录)》를 발표함.
 - 두 문건에 따르면, 희토류는 수출계약에 근거해 수출허가증을 받을 수 있으며, 더 이상 비준문건(批准文件)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
- 중국의 수출허가관리는 수출자동허가제와 수출쿼터제 두 가지로 나뉨. 즉, 희토류가 수출허가증관리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수출수량에 대한 제한이 전면 개방되었다는 것을 의미
- 중국은 1998년부터 희토류 수출에 대해 쿼터제를 시행해 희토류의 수출량과 수출액을 제한해 왔음.
 - 희토류는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중요한 전략 자원인 만큼, 중국의 희토류 수출쿼터 폐지는 국내외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음.
- 이러한 조치는 WTO 약정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WTO 규정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2015년 11월 이전에 희토류 수출쿼터와 관세를 철폐해야 함.
- 2014년 12월 해관총서가 발표한 《2015년 관세실시방안(2015关税实施方案)》에 따르면 희토류 수출 관세는 輕희토류가 15%, 重희토류가 25%로 여전히 불변
- 하지만 수출 개방정책이 희토류산업과 세계 희토류 수급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보편적
- 최근 중국의 희토류 쿼터량은 대략적으로 3만톤 안팎의 수준을 유지했는데, 실제 수출량은 2011~2013년 각각 61.6%, 52%, 73%였으며, 2014년에는 90%로 모두 쿼터량 미만이었음.
 - 해관총서(海关总署)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쿼터량은

30,661톤인데 1월-11월까지 실제 수출량은 27,769톤에 그쳤으며, 수출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35.5% 감소함.

- 한편, 2011년 이후 희토류의 수출가격은 연이어 최저기록을 갱신하고 있음. 2014년 11월 중국 희토류 평균 수출가격은 9.5달러/kg으로 2011년 최고치를 기록했던 295달러/kg의 5%에 불과
- 상무부는 1월 21일 보도자료에서 금년 5월 2일부로 희토류에 대한 수출 관세도 폐지한다고 발표
 - 이번 희토류 수출쿼터제와 수출 관세 폐지 조치로 중국 정부는 희토류의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할 것을 기대

□ 중국 양로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 2014년 12월, 상무부, 민정부는 영리성 양로기관 설립 및 양로서비스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내용의 《공고(公告)》 발표
 - 외국인투자를 통해 양로기관의 규모화, 체인 경영, 우수 양로기관 브랜드 개발 등을 도모
 - 외국인투자 양로기관은 중국 양로기관과 동등한 조세 혜택 등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행정 수수료 감면 혜택이 적용됨
- 양로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그동안 중국기업과의 합자, 합작 형태만 허용되고 독자 진입은 금지되어 왔으며, 중국기업과 동등한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 이번 조치로 이러한 제한이 크게 완화됨.
 - 《공고(公告)》에 따르면, 외국인은 독자 형태로 진입이 가능하며, 중국기업 또는 기타 경제단체와의 합자, 합작 방식으로도 양로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 외국투자자는 영리성 양로기관 설립하기 위해 투자 소재지의 성급 상무주관부처에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신청을 통해 비준을 받아야 하며, 이때

외국인투자자 혹은 실제 경영통제권을 가진 자의 동종업계 종사 경력에 대한 설명 및 증명서류, 또는 양로서비스업 관리 경험이 있는 경영자 고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외국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와 양로기관 설립허가증을 받은 후 관련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
- 한편 《공고(公告)》에서는 양로시설 건설용지에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부동산기업을 운영할 수 없으며, 외국인투자 양로기관은 주택채권 양로(住宅贴现养老) 업무를 금지한다고 강조함.
- 양로기관 업무 범위에 의료위생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관련 정책 규정에 따른 비준 심사를 받아야 함.
- 중국 정부는 노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양로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비해 양로서비스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자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양로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음.

표 1 최근 중국정부가 발표한 양로산업 진흥 정책

발표/시행일시	정책	주요 내용
2013년 7월	양로기관관리방법	기업 사업체, 사회조직, 개인의 양로기관 설립 및 운영 장려, 지원
2013년 9월	양로서비스업 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견	민간 양로기관 설립 지원 및 양로서비스 소비시장 진흥
2014년 9월	양로서비스 정부조달업무에 관한 통지	정부기관의 양로서비스 제공 업무 강화
2014년 11월	중점분야 투융자체제 혁신을 통한 사회 투자 장려에 관한 지도의견	양로산업에 대한 사회자본 투자 장려
2014년 12월	외국인투자 양로기관 설립 허용 공고	영리성 양로기관 설립에 대한 외국인투자 장려
2015년 1월	양로기관에 대한 행정 수수료 감면	비영리성 양로기관의 행정수수료 면제, 영리성 양로기관과 의료기관은 수수료 반액 징수

자료: 중국 언론 정리



재중 한국기업의 대중수출품 교역센터 확보방안

변재서 관세사(서광물류 대표)

□ 한중 FTA 시대에서 수출 전진기지 구축이 절실

- 한중 FTA는 양국의 인적교류와 물적 교역에 있어 서로에게 보다 유리한 룰을 적용하자는 합의
 - 자유무역협정은 상호간 관세장벽의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FTA 이 후에도 비관세장벽은 여전히 잔존할 것으로 우려
 - ※ 비관세장벽; 화장품의 위생허가, 이미용기기 가전제품의 3C 인증 등 각종 인증 허가, 별도의 검사 검역 수속, 수속의 지체 복잡화 등
 - 한중 FTA로 인한 한국 수출품 중 최대 수혜는 농수산 가공식품(93% 무관세)
 - 향후 10년 내 한국산 가전제품, 의료, 미용기기, 의류 등도 무관세화
- 대중 수출물품의 특징은 저가/대량으로서 해상운송이 특징, 따라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를 중국 동부 연안에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
 - FTA로 인해 교역량은 증대, 물류이동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
 - 비관세장벽을 어떻게 해소하는가에 따라 물류의 흐름이 달라질 수있으며, 중국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

□ 물류는 물이다

- 물류는 물적 유통으로 국제무역에는 국제물류가 따름.
 - 물류는 부담 비용 리스크(Risk) 장애 문턱이 낮고 빠른 곳으로 흐르며, 국제물류의 리드타임(Lead Time)은 수입통관 속도가 관건
 - 통관의 속도와 편의성은 수입항 선정의 관건이며, 하드웨어(Hardware)보다 소프트웨어(Software)가 문제
- **사례:** 위해해관(威海海関) 상검국(商檢局)의 협조를 얻어야 위해항(威海港)의 수입화물이 증대
 - 일반무역 화물은 수입지에 제한이 없으며, 상검 통관이 손 쉬운 항구에서 통관이 진행, 최근에는 영성해관(榮成海関) 관할의 석도(石島) 서하구(西霞口) 항구 이용이 빈번

□ 중국경제, 新常态(New Normal)와 시사점

- 경제 New Normal(习近平主席的新常态); 경제정책 목표가 성장률 중심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환, 특히 대졸자 실업난 해소 - 일자리 창출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
 - 2014년 1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 발표된 5대 임무에는 신성장동력 발굴, 경제발전 공간 최적화, 민생안전정책 강화 등이 포함
 - New Normal(新常态)의 특징: 소비의 개성화와 다양화; 생산의 소형화, 스마트화, 전문화; 시장경쟁의 질적 제고 및 차별화가 경쟁력
- New Normal로 인한 중국경제의 변화를 한중 FTA 활용 방안에 적용
 - 북경대 리이닝 교수는 뉴 노멀 하에서 경제발전이념은 6가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중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아래 두 가지

- 수출은 많을수록 좋다는 관념은 수출입 평형을 추구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함.(“出口越多越好”的观念应该转变为追求进出口平衡)
 - 정책적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중소형 기업을 설립하여 취업문제를 해결해야 함.(从高投资拉动就业转变为依靠民间资本参与的适度型投资, 新常态下, 要更加依靠民间资本, 政策鼓励自主创业, 通过建立中小微企业解决就业问题)
 - 따라서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한중 FTA의 거시적인 틀을 짜는 것이 중요, 상대국에 비해 앞선 분야에서 비용 절감 부문 중심으로 협력함이 바람직
- 각 지방정부, 경쟁적으로 국제무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통관 등에 적극 협조
- 리커창 총리가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성장동력임을 강조하면서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서비스플랫폼을 각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설립(청도, 연대, 항주, 영파, 상해, 심천, 광주, 소주, 중경, 성도, 수분하 등)
 - 하남성 정주도 EMS물품, 3C 인증, 위생허가 면제 등을 적극 추진
- 복건성 대만 간 해상특송 서비스 - 지방정부와 중앙기관과의 협조 모범사례
- 천진 渔港수산물교역센터 COLD CHAIN, 부산 감천항의 사례 도입
 - 생우유의 신속통관을 청도해관과 상검국의 협조하에 진행
- 시사점
- 새로운 유통수단 전자상거래 소비 환경, 현대 물류체계를 마련할 필요
 - 소비자주권시대를 맞아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소비행태에 맞는 진출전략이 필요

- 중국과 전략적 제휴 강화하여 조달 판매 연구개발

□ 중국 내수시장 진출 시 고려사항

○ 입향순속(入乡随俗) Marketing; Do in Rome as the Romans do

- 중국의 정책과 지역에 따라 진출방안을 수립
- 물류 루트, 보급로가 짧은 지역으로 저가대량 물품 운송/신선냉장식품 등 신선도가 중요한 물품은 Ferry 이용

○ 구하고자 하면 먼저 주어라; 战国策, 将欲取之, 必姑与之/Give and Take/ 잉어낚시

○ 각 성은 하나의 나라처럼 시장이 다름.

- 산동성은 인구 약 1억, 면적 한국의 1.5배
- 동부연안 /New Silkroad : 一带一路, 西安/화장품, 自贸区/ 跨境贸易电子商务服务平台(전자상거래 플랫폼)
- 중소기업은 2선 도시를 거점으로 활용, 대도시에는 세계 유명 브랜드가 거의 입점

□ 한중 FTA 전진기지로 위해(威海)를 활용

○ 위해 인구 300만 도시로 북위 37도, 같은 위도인 인천에서 93해리, 비행기로 45분, 페리로 14시간 소요

- 인근의 영성 포함 3개 페리 노선이 운항중인 해안관광도시

○ 위해 한국기업 동향과 애로요인

- 약 1천 개 한국계 기업 운영, 대부분 가공무역에 종사, 전자(삼성 프린터

핸드폰 협력업체), 현대 등 자동차 부품업체, 의류, 낚시용품 등이 주류 업종

- 한중 FTA가 발효되면 일반무역으로 내수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 중 수출가공구 내에 소재하는 경우 내수판매로의 전환에 애로(과세가격심사와 채권 회수 등)가 발생

○ 관광지 개항장(물류거점도시), 한국상품 유통기지로서의 역할

- 2만명의 한국인 거주(양국 무역의 가교 역할, 소통문제 해결), 한국상품성 한리광(Korea Town)등 건설
- 한국어와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중국 청년층 다수 존재
- 모든 한국 농수산물가공식품의 중국 수출기지로서 가능하며, 한중 FTA 최대 수혜지로 부상 예견
 - ※ 김치, 젓갈, 낚시용품(세계 60% 생산) 생산가공기지
- 인천항 평택항 동북아 물류허브 기능과 대응하는 대안 항구인 위해(威海) 전체를 한국상품교역센터로 구축함이 바람직

□ 대정부 건의사항

- 투자보다는 자유로운 무역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
- 해상특송(인천-威海 노선)에 대한 협의 중점(厦門-台灣 사례)
- 한국상품관 설립 및 운영 지원(중기청, 무역협회 코트라 각 지자체)
- 한중간 인적 물적 교류 지원(시정부, 해관 상검국 기업인 포함)
- 각 지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 교차투자를 위한 협의 노력(물류기반시설, 콜드체인 등)